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문장 단원 고찰

이래호*

|| 차례 ||

- I. 서론
- II. 제7차 교육과정 『문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의 ‘문장’ 단원 비교
- III. 『독서와 문법』에서의 문법 기술의 문제점
- IV. 결론

【국문초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교과서에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하고,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구분하였다. 종속적 연결어미까지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어의 범위와 관련하여, 필수적 부사어도 보어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독서와 문법』에서는 문법 단위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된다. 문장 성분과 보어의 정의가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다. 문장 성분 분석의 경우, 성분 분석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문장 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법의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한 교재 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고’와 ‘라고’를 인용격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부사격 조사라고 하기도 하는 등 교재 내에서 설명이 불일치하여 교재의 신뢰성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부교수

주제어 :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어미, 문장 체계, 보어, 관형사형 어미, 문장성분.

I. 서론

문법 교과서는 1985년 이전에는 검정 체제였다. 1985년부터 단일본 국정 교과서로 바뀐 뒤 다시 몇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치다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검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2012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검정 체제의 문법 교과서(『독서와 문법』)로 교육을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균형 있는 국어 학습을 위하여 기존의 국어과 선택과목 체제를 재구조화하였다. 글을 읽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 활동과 실제적인 국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 활동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독서’ 과목과 ‘문법’ 과목을 ‘독서와 문법’ 과목 하나로 결합하였다. ‘독서와 문법 I’의 ‘문법’에서는 “국어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국어생활을 탐구하는 데” 학습 중점을 두고 ‘국어와 삶’, ‘국어와 삶’ 범주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¹⁾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 기준에 따라 집필되어 검정을 통과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네 출판사의 책이다.²⁾ ‘독서와 문법1’의 ‘문법’ 분야는 제7차 교육과정 문법과 마찬가지로 명제적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중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2011)을 참조하기 바람.

2) 이하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는 『문법』으로 제시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용 지도서』로 표기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독서와 문법』으로 제시하며, 각각의 교과서를 이를 때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등으로 표기할 것이다.

시히는 학습 방향으로 학습 내용이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규범적 개념을 단순히 학습하고 암기하기보다는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인위적인 용례보다는 실제 사용된 용례 중심으로, 문장의 분석하기보다는 문장을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 교과서의 문법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 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 내용 면에서는 네 교과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³⁾

본고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분야인 ‘어미’와 ‘문장 체계’ 그리고 ‘보어’에 대해 『독서와 문법』⁴⁾에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으며, 『문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문장 단원의 내용 기술 가운데서 문법 요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법 과목의 목표⁵⁾ 가운데 하나인 ‘국어

3) 1985년 이전의 검정 체제의 문법은 용어와 체계, 내용 기술이 교과서마다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1985년 국정 체제의 단일본 교과서의 출범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검정 체제는 지금까지의 문법 연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학교 문법 연구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교과서마다 용어, 체계와 내용 기술이 달라져, 학생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4) 각 출판사마다 단원의 명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비상교육>: IV 국어의 앞, 2. 문장, 01 문장의 성분, 02 문장의 종류, 03 문법 요소 (pp.197-220)

<지학사>: 3. 국어의 이해와 탐구, 0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구조, (3) 문법 요소(pp.272-303)

<미래엔>: II. 우리말의 의미 형성, 1. 문장, (1) 문장의 구조와 종류, (2) 문법 범주의 이해(pp.88-107)

<천재교육>: III. 국어의 구조, 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짜임, (3) 국어의 문장 표현(pp.225-253)

5) 2009 개정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한 문법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에 대한 이해와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고 국어

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현상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문법 단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장에서는 ‘어미’와 ‘문장 체계’, ‘보어’에 대해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문장’ 단원의 비교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서와 문법』에서의 문법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Ⅱ. 제7차 교육과정 『문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의 ‘문장’ 단원 비교

1. 어미 체계와 문장의 종류

어미의 체계는 문장의 종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어미를 어떻게 체계화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종류도 달라진다. 곧, 연결어미와 전성 어미(부사형 어미)를 각각 인정하면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구분되지만, 연결어미 모두를 부사형 어미로 취급하면 겹문장은 안은 문장만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결어미 중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취급하면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만이 존재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장과 어미의 체계에 대한 관점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하여 종속

와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

나.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문법 능력’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말한다.

절로도 볼 수 있고,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말어미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부사형 어미의 범위를 넓혀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문장수식의 부사형 어미에 소속시켰다.

『문법』 교과서에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하고,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문장(주절)을 수식하는 ‘-게’의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처리하고, 보조 용언 수식이나 일반 용언 수식과 같은 ‘-게’는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같은 어미의 체계에 따라 문장의 짜임도 겹문장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어진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설정함으로써 안은 문장의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구분하였다. 그러나 ‘비가 와서 길이 질다’의 앞 절인 ‘비가 와서’가 뒤 절인 ‘길이 질다’ 속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들어, 『문법』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소위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는 어미와 문장의 체계에서 『문법』과 사뭇 다른 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⁶⁾ 곧, 부사형 어미의 범위를 넓혀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문장수식의 부사형 어미에 소속시켰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어말어미의 종류로 연결어미를 설정하지 않고,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고, 두 종류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는 이전의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모두 주절(문장)을 수식하는 어미로 보는 ‘문장 수식 부사형 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본동사+보조동사 결합에 나타나는 부사형 어미(보조적 연결어미)와 형용사에 결합하여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형 어미(일반 용언 수식)로 보는 ‘단어 수식 부사형 어미’이다.⁷⁾ 또한

6)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어미 체계를 확정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7) 『교사용 지도서』(134)에는 “이는 근본적으로 국어에서 부사절과 종속절(터 나아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도 부사절로 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고영근(2004), 성낙수(2004) 등에서 제기되었다.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에서는 어미의 체계와 문장의 체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천재교육>, <지학사>에 제시되어 있는 어미의 체계와 이에 따른 문장 체계를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1) <천재교육>의 어말 어미 체계(207쪽)

가. 종결어미

나.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지만, -(으)나
- 종속적 연결 어미: -아(/어)서, -러, -면, -니까, -고
-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다. 전성어미

- 명사형 어미: -기, -(으)ㄴ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 -던
- 부사형 어미: -게, -도록, -듯이¹⁰⁾

대등절을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이익섭 1986:121). ... 이미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연결 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는 기술을 보이고 있다.”는 기술이 있다. 이익섭(1986)에서는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으나, 이익섭(2003)에서는 연결어미로서 대등적 연결어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익섭·채완(1999)에서 접속은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하여, 대등 접속을 설정하고 있고, 종속 접속은 배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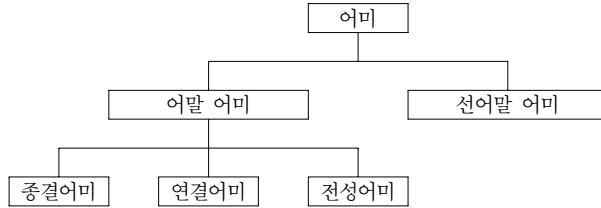
8) 이러한 분류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고영근(2004)를 참고하기 바람.

9) <미래엔>과 <비상교육>에서는 용언의 활용 부분이 빠져 있어, 어미의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제시된 것을 종합해 보면 (1)이나 (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10) <천재교육>(207)에서 “부사형 어미를 넓게 보아 종속적 연결 어미까지 포함하기도

(2) <지학사>(253쪽)의 어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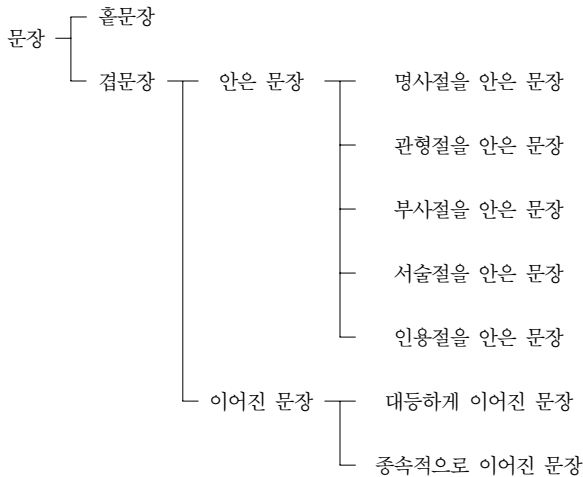
가.



나. 어미의 종류

- 종결어미: -다, -구나, -니 등
- 연결어미: -면, -어서 등
- 전성어미: -는, -기, -게 등

(3) 『독서와 문법』의 문장 체계¹¹⁾



한다.”고 하여,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절로 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1) <천재교육>(p.233), <미래엔>(p.93)에는 (3)의 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지학사>는 (3)의 표와 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답아 보기’(p.288)과 문장의 구조(pp.282-287)를 종합하면 (3)과 같은 표와 일치한다. <비상교육>은 2절 문장의 종류(p.203)을 정리하면 (3)과 같은 표로 귀결된다.

<천재교육>에서는 (1)과 같이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구분하고 있고, 전성어미도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문법』과 동일하다. <지학사>에서의 어미 체계는 (2)와 같은데, 세부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천재교육>의 분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재교육>의 문장에 대한 관점은 어미를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데, <천재교육>에서 제시한 (3)의 체계는 이어진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었고, 안은문장 중에도 부사절을 안은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엔>와 <비상교육>의 문장의 종류에서도 (3)과 같은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어미를 보는 입장도 (1)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법』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소위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였는데, 『독서와 문법』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 그러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4) <미래엔>

지식+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바깥이 잘 보이게 창문을 열어라.’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장의 종류는 어미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연결 어미로 보게 되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게 된다.(93쪽)

(5) <비상교육>

일반적으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에 ‘아름답게’가 안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아름답다’를 부사절로

만들어 주는 어미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앞 절로 볼 가능성도 있다. 즉,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를 기본 문장으로 보고, ‘-게’를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명명할 수 있다.(205쪽)

(6) <지학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보내면,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남게 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의 구별이 모호하므로, 이러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289쪽)

(7) <천재교육> 탐구활동

부사형 어미는 넓게 보아 종속적 연결 어미까지 포함하기도 한다.(207쪽)

(4)의 <미래엔>과 (5)의 <비상교육>에서는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별이 어려우며, ‘-게’에 의한 문장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고, 이어진 문장으로도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게’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면 곧, 종속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 (6)의 <지학사>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보낼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종속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의 <천재교육>에서는 넓게 보아 종속적 연결어미까지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장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부사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¹²⁾

12)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선택과목의 집필 기준에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에 준하여 집필한다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집필 기준에 따르면, 국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운, 단어, 어휘, 문장, 담화/글’ 등의 각 언어 단위를 골고루 다루도록 하되, 문법 용어는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들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곧 대등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없으며,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한 문장(대등절) 역시 부사절이 아닌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데에는 교육과학기술부(2009)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참고 될 만하다.

- (8) 한편,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형태를 중심으로 보아 부사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중심으로 보아 종속절 또는 대등절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법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밑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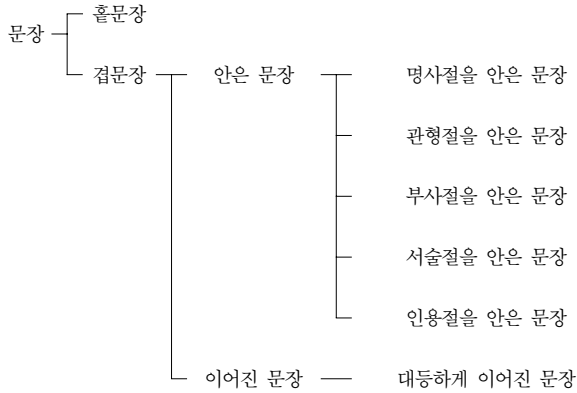
(8)은 교재 집필자들의 ‘근본적인 문법관’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절’로 볼 수도 있고, 부사절로 볼 수도 있지만,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필자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보는 문법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독서와 문법』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8)을 종합해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의 문장의 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3)과 같으나, 다음 (9)의 체계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교과서의 것을 참조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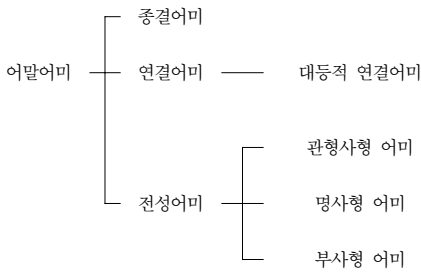
13) (8)~(11)에 따르면 연결어미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독서와 문법』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종속적 연결어미만을 부사형 어미로 본다면 (나)와 같은 체

(9) 『독서와 문법』 문장의 체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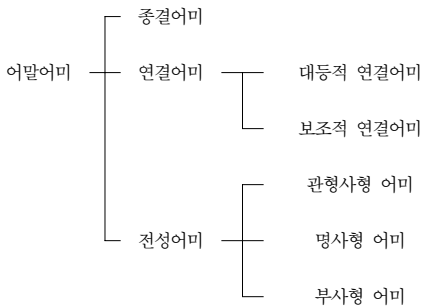


계가 될 것이고, 기능과 형태를 위주로 보면 종속적 연결어미와 보조적 연결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아 (가)와 같은 체계가 될 것이다.

(가)



(나)



2. 보어의 범위

필수적 부사어를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보아야 하는가, 필수 성분(주성분)인 보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어로 설정하고 있고,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보격조사 ‘이/가’를 갖고 있는 성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 (10)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문법』과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10가)의 ‘얼음이’는 보어이지만, (10나)의 ‘얼음으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는 모두 서술어의 자릿수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조사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만약 이 둘을 모두 보어로 보고, ‘이/가’, ‘(으)로’를 모두 보격조사로 본다면 ‘집으로 가다’의 ‘(으)로’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여,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독서와 문법』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도 보어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1) <비상교육>

다음은 <보기>의 ㉠과 ㉡을 비교하여 탐구한 결과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 성분을 각각 써 보자.

14) 문법이 1985년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면서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이/가’만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의 ‘얼음이’는 ‘되었다’ 앞에 쓰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물이 되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의미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얼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의 ‘얼음으로’는 ‘되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 ㉠과 마찬가지로 ‘얼음으로’가 ‘물이 되었다.’라는 문장의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200쪽, 밑줄 필자)

(12) <미래엔>

지식+ 보어의 범위

보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아니면서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얼음이’, ‘학생이’ 등만을 보어에 포함한다. 하지만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우체통에’의 경우도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보어로 볼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에’가 부사격 조사이므로 ‘우체통에’를 보어가 아니라 필수 부사어로 취급한다.(92쪽)

(13) <천재교육>

가. 3. 다음 ㉠~㉢를 바탕으로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 ㉠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 ㉡ 나는 철강 회사에 다닌다.
- ㉢ 내가 의장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중략...

나. (3) ㉠과 ㉡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해 보고, 두 문장 성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해 보자.

특성	㉠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해진다.		
격 조사 ‘이/가’와 함께 쓰인다.		
격조사 ‘(으)로, 와/과, 예’ 등과 함께 쓰인다.		
함께 사용되는 조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다. (4) 위 (3)을 바탕으로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11)~(13)의 탐구활동과 보충 설명은 모두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 있음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1)의 에는 차례로, ‘보어’, ‘부사어’, ‘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분이므로 보어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2)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는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보어로 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3나)의 (3)번 탐구활동의 경우,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는 “격조사 ‘이/가’와 함께 쓰인다.”와 “격조사 ‘(으)로, 와/과, 예’ 등과 함께 쓰인다.”라는 차이점밖에 없음을 드러내어 (13다)의 4번 탐구활동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도 있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이어져 온 ‘보어’의 범위와 크게 차이가 있다. 비록,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 있음을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탐구활동이나 보충 설명에서 그 범위가 필수적 부사어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들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문법』이나 『교사용 지도서』와 차이가 있다.¹⁵⁾

15) <지학사>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배운 후에’ 편에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밑

Ⅲ. 『독서와 문법』의 문법 기술의 문제점

1. 문장 성분의 정의

문장 성분에 대한 정의는 남기심·고영근(2005)에서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문법적 기능’이라는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4) 문장 성분의 정의

가. <비상교육> 화자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한 문장은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나. <천재교육>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다. <지학사>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라. <미래엔> 주어와 서술어를 비롯하여 문장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1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과서의 문장 성분의 정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4가)~(14다)의 “문법적 기능”이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문법적 기능’은 곧 ‘직능’으로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한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어미, 존대나 시제 등을 표현

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연습문제를 통해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구별하고 있다.

하는 선어말어미 ‘-시-’, ‘-었-’ 등으로 다양하다. <비상교육>, <천재교육>, <지학사>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도 모두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는 ‘문장 성분’의 완전한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14라) <미래엔>의 정의는 <비상교육>, <천재교육>, <지학사>보다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부분”이 어떤 문법 단위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¹⁶⁾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는 남기심·고영근(2011)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심·고영근(2011)에서는 ‘문장성분’을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따위가 있다.’와 같은 부차적 기술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보어의 정의

6차 교육 과정의 『문법』에서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 중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으로 보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보어라고 불리는 성분의 분포일 뿐이지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 7차 교육과정의 『문법』에서는 보어의 정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로 되어 있는데, 그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¹⁷⁾ 이러한 사정은 『독서와 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16) 이러한 문장 성분 정의의 불명확성은 문장 성분의 분석과도 연결된다.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어를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 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철수가 지도자가 되었다’의 ‘지도자가’ 따위이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보어를 ‘수식어’라고 했는데, 수식어라면 ‘수식어’에 속해야 할 것인데, 학교 문법이든 학문 문법이든, ‘보어’는 필수 성분에 속하는 문장 성분이다.

(15) 보어의 정의

- 가. <비상교육> ‘되다’와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主語)를 제외한 것.
- 나. <천재교육> 보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主語)를 제외한 문장 성분을 말한다.
- 다. <지학사> 보어(補語)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한다.
- 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 라. <미래엔>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내용을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이다.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의 보어에 대한 정의는 모두 불충분하다. (15가) <비상교육>과 (15나) <천재교육>의 정의는 동일하지만, 그 정의는 불완전하다. 이들 보어에 대한 정의는 정의의 형식에서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에 대한 정의의 형식과 사뭇 다르다.¹⁸⁾ (15다) <지학사>에서의 보어에 대한 정의에서, ‘보어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5다)의 설명에 따르면 (15다)의 ‘아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각각 ‘그는’과 ‘학생이’이므로, ‘그는’과 ‘학생이’ 모두가 보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15다) <지학사>의 의도는 ‘학생이’만을 보어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5라) <미래엔>의 정의도 불충

18) <천재교육>에서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상교육>에서는 주어를 “주격 조사 ‘이/가’, ‘께서’를 붙여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를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서술어를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하지만,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내용을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여 ‘보어’의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15가)~(15다)의 세 교재의 정의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성분은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는 서술어도 그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를 보충해 주므로, 이들도 보어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¹⁹⁾ 또한 보어가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지, 주어를 보충해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점이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어는 “한 문장에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법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

<미래엔>에서는 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6) 시제, 동작상 이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시간 표현을 다루는 것으로 서법이 있다. 서법은 ‘너는 밥을 다 먹었느냐?’에서와 같이 ‘-느’에 의한 직설법, ‘그는 밥을 다 먹었더니?’에서의 ‘-더-’에 의한 회상법 등이 있다.<미래엔>(101쪽)

19) 정의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보충 설명에 따르면, 필수적 부사어는 보어에서 제외된다.

20) 보어는 최재희(2006:197)에서는 “서술어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두 자리 서술어인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이/가’의 성분이다.”로 정의되어 있고, 김광해 외(1999)에서는 “되다, 아니다’ 등과 같은 용언이 서술어가 되면 반드시 ‘무엇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해 주어야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보충해 주는 성분을 보어라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2005)에서는 보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외에 또 보어라는 필수적인 주성분이 있다...다시 말하면 동사 ‘되다’나 형용사 ‘아니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체언에 조사 ‘이/가’가 붙은 보어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설명이 있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한다.”고 하였다.

‘-느-’와 ‘-더-’를 <미래엔>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17) 관형사형 어미

- 가. <미래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을 가진 관형절이 안김.
- 나. <천재교육> 관형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 다. <비상교육>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
- 라. <지학사>: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표현하는 시제의 차이를 보인다.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교과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으)ㄴ’, ‘-는’, ‘-(으)르’, ‘-던’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16)에서 ‘-느-’는 직설법, ‘-더-’는 회상법의 선어말어미로 규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17가) <미래엔>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는 선어말어미를 제외한 ‘-(으)ㄴ’과 ‘-(으)르’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천재교육>에서도 나타난다.

- (18) 어떤 문장이 절이 되어서 다른 문장 속에 안기려면 반드시 절 표지가 있어야 하잖아. 명사절의 ‘-(으)ㄴ, -기’나 관형절의 ‘-ㄴ, -르’처럼 말아야.<천재교육>(235쪽)

(18)은 <천재교육>의 원리 익히기(탐구 학습)의 한 부분인데, 관형절로 안기려면 ‘-ㄴ, -르’²¹⁾의 절 표지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17나)에서 제시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교재 안에서 관

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법』에서도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하여 ‘-(으)ㄴ’, ‘-는’, ‘-(으)르’, ‘-던’을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보고 있고, 또한 많은 연구에서도 관형사형 어미로 ‘-는, -은, -을, -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어말어미와 ‘-ㄴ, -르’의 결합형을 관형사형 어미로 볼 것인지, 선어말어미와 ‘-(으)ㄴ, -(으)르’를 분리하여 ‘-(으)ㄴ, -(으)르’만을 관형사형 어미로 볼 것인지는 문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²²⁾ 그러나 교과서에서 적어도 관점이나 설명이 서로 대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교과서 내에서 어미의 종류나 표기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는 것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법 교과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16)을 고려한다면 학교 문법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으)르’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던’과 ‘-는’은 각각 선어말어미 ‘-더-’와 ‘-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1) 더 정확히는 ‘-(으)ㄴ’, ‘-(으)르’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22) 임흥빈·장소원(1995:417)에서는 “‘-는’이나 ‘-던’에서 ‘-느-’나 ‘-더-’와 ‘-(으)ㄴ’을 분리하면, 관형절이나 주절에서의 ‘-느-’나 ‘-더-’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으)ㄴ’은 앞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수식의 기능을 하는 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면, 형용사 어간 뒤에서 ‘-(으)ㄴ’이 현재를 나타내는 일이 설명될 수 있다. 동사 어간 뒤에서 ‘-(으)ㄴ’이 과거를 나타내는 이유는 ‘-느-’의 결여에 의하여 과정성을 가질 수 없고, 또 ‘-(으)르’과의 대립에 의하여 미래의 뜻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으)ㄴ, -(으)르’만을 관형사형 어미로 보고자 하였다. 남기심·고영근(2005)에서도 “‘-는, -ㄴ, -던, -르’은 한 문장을 관형사처럼 바꾸어주므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는, -던’은 교착적 선어말어미 ‘-느-’와 ‘-더-’의 복합형식이므로 국어의 관형사형어미는 ‘-ㄴ, -르’에 국한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박재연(2009:153)에서는 ‘-는’, ‘-던’, ‘-있던’ 등은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형으로 보고 있다.

4. 인용격 조사

7차 교육과정의 『문법』에서는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고’, ‘라고’가 인용격 조사인지, 인용격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²³⁾

『독서와 문법』 네 교과서 모두 ‘고’, ‘라고’를 인용격 조사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교육>에서는 ‘고’와 ‘라고’를 인용격 조사라고도 하고 부사격조사라고도 한다.

(19) 가. <천재교육>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경우로, 주어진 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233쪽)

나. <천재교육>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은 주로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데 비해 인용절은 조사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인용절의 표지로 쓰이는 ‘(이)라고, 고, 하고’는 부사격조사이다.”(236쪽)

‘고’, ‘라고’에 대해 (19가)에서는 인용격 조사로 보고, (20나)에서는 부사격 조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천재교육>에서는 동일한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사에 대해 부사격 조사와 인용격 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²⁴⁾ (19나)의 경우 ‘고’, ‘라고’를 인용격 조사로 볼 수 없다는

23) 남기심·고영근(2005)에서는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조사 ‘-라고,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인용격 조사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느 언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격이며, 국어의 조사 중에는 문장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는 없기 때문에 인용격 조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 견해를 제시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선웅(2006), 성낙수(2004), 최재희(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4) 유현경(2001)에서는 간접인용절을 대응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로 대응되다는 이유로 간접인용절의 ‘-다고, -라고, -자고, -냐고’를 종속적 연결어미, 즉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로 보고 있다.

그간의 비판을 수용하여,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고’, ‘라고’를 인용격 조사라고 하고서 뒤에서 다시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한 교과서 내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²⁵⁾

또한, 직접 인용의 조사는 (19가)의 <천재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엔>과 <비상교육>, <지학사>에서도 ‘라고’로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20) 가. 철수는 “날씨가 좋군.”이라고 말했다.

나. ‘철수는 “오늘 뭐 했어?”라고 물었다.

(20)에서처럼 직접 인용문의 종결어미가 폐음절로 끝나면 ‘이라고’가 결합되고, 개음절로 끝나면 ‘라고’가 결합되므로, 직접 인용의 조사는 ‘(이)라고’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5. 문장 성분의 분석의 단위

『독서와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 어떤 문법 단위를 중심으로 해야하는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²⁶⁾

(21) <지학사>(277쪽)

가.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나. 맞보기

25) 인용격을 인정하고, 인용격 조사를 인정하였다면, 격조사의 종류에도 인용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격조사의 체계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6) 이러한 점은 『문법』이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수식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 주는 마음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22) <지학사>(256쪽)

동생이 방에서 언니의 책을 읽었다.

동생이 방에서 언니의 책을 읽었다.				
동생+이				읽었다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 주격조사				동사

(21가)의 관형어와 부사어의 설명에 따라, (22나) ‘맞보기’의 의도는 ‘동그란’은 ‘마음’을 수식하고, ‘위로의’는 ‘선물’을 수식하고, ‘활짝’은 ‘웃어 주는’, ‘먼저’는 ‘주는’을 수식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그란’과 ‘위로의’는 관형어, ‘활짝’과 ‘먼저’는 부사어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22) <지학사>의 조사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설명되고 있다. (22)의 표도 (21가)에 따라 ‘언니의 책’에서 ‘언니의’는 ‘언니+의’로 분석되고, ‘의’는 관형격조사이기 때문에, ‘언니의’는 ‘관형어’ 자리에 들어 가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장 성분 분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문과 문제들에서 문장 성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주저하게 만든다.

(23) <지학사>(276쪽)

가. 다음 예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주어이다.

착한 철수는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나. 위어 보기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p.281)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1) 밑줄 친 ㉠, ㉡, ㉢의 문장 성분을 말해 보자.

(21가)의 설명에 따르면 ‘착한 철수는’은 응당 관형어 ‘착한’과 주어 ‘철수는’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3가)에서는 ‘착한 철수는’을 주어로 보고 있다. ‘착한’은 (21가)의 설명에 따르면 관형어이고 (23가)에 따르면 주어의 일부인 것이다. (23나) 엮어 보기의 문제가 “밑줄 친 ㉠, ㉡, ㉢의 문장 성분을 말해 보자”이므로 (21가)에서 인식한 바에 따르면 ‘좋은 언어로’의 ‘좋은’은 관형어, ‘언어로’는 부사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을’의 ‘이’는 관형어, ‘세상을’은 목적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의도는 ‘좋은 언어로’는 부사어, ‘이 세상을’은 목적어로 분석하는 것이다.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일치하지 않아 문장 성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다.²⁷⁾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문장 성분 분석의 예는 주로 홑문장을 제시하였다. 홑문장의 경우 문장 성분 분석 단위가 어절 단위일 경우가 많으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겹문장일 때는 어절, 구, 절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 분석이 훨씬 복잡해진다. 다음은 <천재교육>(232~233쪽)에서 안긴 문장으로 제시한 예이다.

(24) 가.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나.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다. 동생은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24가)~(24다)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절, 부사절, 명사절이면서 문

27) <천재교육>에서도 이러한 예문이 발견된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시를 좋아했다.”(p.227)의 ‘그 사람의’ 전체를 관형어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네 잘못된 아니다.”(p.229)의 ‘네 잘못된’ 전체는 보어로 분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 성분으로는 각각 관형어, 부사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문장의 문장 성분을 조사가 결합된 형식 위주로 볼 때, (21나)에서 분석한 예를 보면, (24가) 문장은 ‘이’는 관형어, ‘책은’은 주어, ‘내가’는 ‘주어’, ‘읽은’은 관형어, ‘책이다’는 서술어처럼 분석될 가능성이 있고, (24나)는 ‘그들은’, ‘우리가’는 주어, ‘입은’은 관형어, ‘것과’, ‘똑같이’는 부사어, ‘입고’ 서술어, ‘있다’ 서술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가능성은 문장 성분 분석의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과서에서 문장 성분의 분석은 조사나 어미가 결합된 문법 단위 위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어절 단위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주성분 위주로 먼저 분석한 후, 주성분 안에서 또 주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절을 분석하고 절 안에서 또 어절 단위로 분석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할 것이다.²⁸⁾

IV. 결론

지금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의 문장 단원을 중심으로 ‘어미’와 ‘문장 체계’ 그리고 ‘보어’에 대해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문장 단원의 내용 기술 가운데서 문법 요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와 문법』에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하고,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

28) 『독서와 문법』에서의 문법 기술의 문제점으로 신승용(2006)에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인지 두 개의 서술어인지,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없다는 점, 부사형 어미의 범의 문제 등이 있다.

사형 어미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문장(주절)을 수식하는 ‘-게’의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처리하고, 보조 용언 수식이나 일반 용언 수식과 같은 ‘-게’는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였다. 또한 종속적 연결어미까지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교사용 지도서』와는 달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펼치지 않는다.

『독서와 문법』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도 보어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탐구활동이나 보충 설명에서 그 범위가 필수적 부사어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는 문법 과목의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려면, 문법 단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서와 문법』에서는 문법 단위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된다. 문장 성분과 보어의 정의가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다. 문장 성분 분석의 경우, 성분 분석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문장 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법의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한 교재 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고’와 ‘라고’를 인용격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부사격 조사라고 하기도 하는 등 교재 내에서 설명이 불일치하여 교재의 신뢰성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서-」, 『우리말연구』 15, 우리말학회, 2004, pp.23-25.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11.
- _____,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_____, 『교사용 지도서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 _____,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김광해 외, 『국어지식탐구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학개론]』, 박이정, 1999.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
- 박덕유, 『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5.
- 박소영,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 34호, 2002, pp.49-73.
- 박영순, 『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2005.
- 성낙수,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제1호, 2004, pp.141-160.
- 시정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몇 가지 문제, 새로운 국어 교육을 위하여』, 월인, 1998.
- 신승용, 「문법 교과서 내용 기술상의 몇 문제와 개선 방향」, 『어문연구』 34권 제4호, 어문연구회, 2006, pp.401-426.
- 유현경,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제16집, 한국어학회, 2002, pp.333-352.
- 이관규, 「국어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 16집, 한국어학회, 2002, pp.105-147.
- _____, 「국어 부사절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한계점」, 『언어』 27집 3호, 한국언어학회, pp.399-416.
- _____, 『학교 문법론』, 월인, 2002.
- 이선웅,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검토 -‘단어’와 ‘문장’ 단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권 제3호, 어문연구회, 2006, pp.447-472.
- 이은경, 「역대 학교 문법의 연결 어미와 부사형 어미-이어진 문장, 부사절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6집, 한국어학회, 2008, pp.285-315.

이익섭, 『국어 부사절의 성립』, 학연사, 2003.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

임지룡 외,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문법 교육론』, 역락, 2010.

정달영, 「국어 학교문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중·고등학교 학교문법의 통일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7, 한민족문화학회, 2005, pp.335-374.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2006.

최호철,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 분석 연구-체재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2006, pp.117-154.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Sentence Unit in the Textbook "Reading and Grammar"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Lee, Rae-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ntence section of the newly published "Reading and Grammar" textbook. The argument of this paper centers around two major points. The first one will tackle how the concepts 'ending', 'system of sentences' and 'complement', which were the most argued domains in the textbook "Grammar" of the 7th Curriculum, are described in the book "Reading and Grammar", and what particular differences does the latter have with the former. The second one will raise issues on the inaccurate explanation and vague definition of the grammatical elements discussed in the sentence unit.

The conception of 'ending' and 'system of sentences' in "Reading and Grammar" has little difference with that of the 7th Revised Curriculum textbook "Grammar". However, the treatment of 'obligatory adverbial' as 'complement' is introduced in the former. The book "Reading and Grammar" has contents that could cause confusion due to inaccurate definition and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grammatical units. In particular, the sentential components and complement are inaccurately defined, and there are contradictions on the analysis of sentential components and on the explanation about adnominal endings in this textbook.

Key-words : 2009 revised curriculum, *Reading and Grammar*, ending, system of sentence, complement, adnominal ending, sentential components.

이래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부교수

주소 : (560-8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LG아파트 101동 1102호

전화번호 : 063-25206748

전자우편 : raeholee@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